

### 민선 4기 출범 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노관규 순천시장

이성웅 광양시장

신정훈 나주시장

##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정겨운 도시’ 기틀 마련”

“개발 일반도의 시정 보다는 천혜의 자원을 잘 보존하고 구우어 물과 숲이 어우러진 정겨운 도시의 기틀을 다지고 시민 삶의 질을 높여겠습니다.”

5·3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노관규 순천시장(46)은 “공모를 통해 시정목표를 ‘물과 숲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 정겨운 순천’으로 정했다”며 “이에 따른 시정방침으로 정다운 행정, 활기찬 경제, 품격높은 문화, 살아 있는 환경 등 4개 분야를 선점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취임식에서 노 시장은 본격적인 민선 4기 출범 선언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정직·공정·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실천함으로 시민의 기대에 보답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을 서명했다.

구체적 실천 사항으로는 ▲업무관련 부정부패행위를 하지 않겠다 ▲부당한 청탁을 단호히 거절하겠다 ▲내부 부패유발 요인이 있는지 항상 점검하겠다 ▲순천시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을 준수하겠다 등 4개 항목이다.

노 시장은 “권위주의 잔재 청산은 물론 각종 이권계급을 철저히 차단,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할 것이며, 시스템에 의해 시정이 유지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선 4기 시정을 이끌어가면서 그동안 시 행정의 잘된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부분은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과감히 개선하며, 행정에는 원칙과 기



솔선수범 ‘청렴서약’ 서명 투자 유치·중소기업 육성

준을 바로 세워 시민들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다정 다감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광양만권 통합과 관련, 노 시장은 “순천·여수·광양을 자립형 광역도시로 통합하자는데 이견이 없다”며 “광양만권 광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행정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지 교통체 중 구간의 도로 정비와 간선도로 개설, 신대 배후단지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는 등 광양만권 중심도시 기반을 구축하면, 순천은 행정 서비스 배후지역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노 시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대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영세상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심활성화조례를 제정하는 등 ‘활기찬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 시장은 “생태환경 도시, ‘살아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동천과 순천만을 잇는 자연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임기내에 민·관이 협력해 300만 그루 나무 심기운동을 전개, 늘 푸르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 시장은 장흥 출생으로, 구로공단 공원을 거쳐 9급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 92년 사법시험에 합격(34회), 대검 중수부와 서울 북부지검,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를 지낸 법조인 출신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 “소득 3만달러 시대 도전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최선”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끌어내면서 모든 시민이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도시’, 시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도전하는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이성웅 광양시장(63)은 민선 4기가 지향하는 시정 목표를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살을 에고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각오가 돼있으며 이를 위해 7대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우선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규모를 지방세 수입의 5%까지 끌어올려 자식 교육 때문에 더 이상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명문 교육 도시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리고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 유치와 함께 문화·산업을 한데 묶는 관광자원을 개발해 실물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 시장은 특히 “오는 2010년까지 복지 관련 예산을 15% 수준으로 확대, 저소득층과 노약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저출산시대에 대비해 영유아와 여성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500만 그루 나무 심기 등 녹지도시 건설과 근린공원이나 유원지, 광양읍의 동·서천변 레저공원과 같은 다양한 휴식공간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 환경문제를 광역적으로 해결해 나갈



SOC 확충 경쟁력 강화 명문교육도시 건설 역점

를 위해 매년 200억원 이상을 농업부문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광양항 300만TEU (1 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하나) 달성 시 급한 과제인 만큼 배후단지 조성 및 배후 수송망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고, 컨테이너부두 공단과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기관과 통합 마케팅을 펼치면서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개교와 항만 전문인력 유치, 항만 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해 감시하고 때로는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조직 개편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 확대도 투명한 열린 행정, 창의적 경영행정, 진정한 감동행정을 펼칠 각오”고 말했다.

/광양=김훈호기자 chkim@kwangju.co.kr

## “희망찬 미래 백년 활짝 전국제일 자치도시 건설”

“나주 발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시민들의 새로운 열망과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정훈(42) 나주시장은 민선 3기까지 시장 재선을 허락하지 않았던 나주에서 압도적 지지로 재선에 성공했다. 신 시장은 “그동안 낙후된 나주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유치로 희망찬 미래 백년을 열게 됐다”며 전국 제일의 선진 자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도시 건설 ▲제2차 농업발전 5개년 계획수립 ▲대도시 수준의 복지, 문화, 교육도시 ▲참여자치의 정착과 행정혁신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17개 이전 기관들을 2012년까지 이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전기관과 관련된 연구소와 연관기업도 유치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지역경제를 살려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나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우선 남양유업 나주공장과 국민임대산업단지, 생물산업지원센터를 계획대로 조성하겠다”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성공적 공동혁신도시 조성 농업발전 5개년 계획 추진

있는 문화·관광도시 건설을 강조했다. 신 시장은 “올 안에 금성관과 동점문 등 4대 문 북원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드라마 ‘주몽’ 세트장을 비롯해 천연염색문화관을 연계한 패키지 관광을 상품화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영산강 고대문화권 개발 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천연 목사고을의 위대한 모습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농민운동 출신답게 농촌문제는 그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

신 시장은 “철저한 농업의 퇴살기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제2차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과감한 투자로 농업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쌀과 같은 전통적 식량산업은 친환경 웰빙, 체험관광 등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지 밭론, 노안 미나라, 공산토종잡곡 등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작목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해 최고 수준의 공립 유아원, 공영형 혁신학교, 영아마을을 설립해 어느 지역에도 뒤지지 않는 교육의 요람을 만들겠다는 각오도 보였다.

신 시장은 고려대 재학시절 미문화원 접거농성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뒤 고향으로 낙향, 수세 거부 운동 등을 주도하는 등 농민운동을 시작했다. 2차례나 무소속으로 전남도 의원을 지낸 뒤 민선 3, 4기 나주시장에 당선됐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민족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 신동정 제약주식회사

# 버미플루 1알로

## “환히 웃는 우리가족”

**1회 1정 먹는 구충제 - 버미플루**  
**회충, 오충, 편충, 십이지장충을 한번에 없애줍니다.**

복통, 황문주위의 가려움,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기생충은 인체의 장내에서 피를 빼앗아 가며, 식욕부진, 위통, 설사, 빈혈의 원인입니다. 1회 1정으로 회충, 오충, 편충, 십이지장충을 한꺼번에 없애주는 구충제 - 버미플루 이제부터 기생충으로 인한 가족의 질병은 버미플루로 지켜주세요.



1회 1정 복용하는 구충제  
**버미플루 정**

※본 광고의 목적은 의학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의사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사용법을 지켜주세요.